

시

박행자

병

사뭇,
그립던 날에
병이 났다

멀고도
가까운 곳에
계시어도

차마
홀로 깊은 밤

약력

▲1996년 계간 '해동문학', 월간 '한국시' 시 부문 당선
▲전남문학상 수상 외
▲전남문인협회 편집국장 역임, 전남문인협회 부회장(현)
▲시류문학회장, 시낭송가
▲시집 : '외로워도 가끔은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다', 시낭송 애호가
를 위한 '현대시낭송 시선집'



시

전경희

낙엽

어느 산사 오솔길에서, 바람은
바쁜 겹겹으로 갈잎들을 몰고 가고 있다
세상이 그러하듯
제각기 꿈이 그러하듯
무리에서 이탈한 너희들
걱정적인 욕정 주체할 수 없어
호수 위에 등지 틀어 붉은 물감 뿜어내며
산사의 사연이 되고
인적 드문 찾길 다포 위에
갈색 부처가 되고

너희들은 신작로 끝에 수예점도 차렸구나

약력

▲광주문인협회 이사
▲영호남문인협회 이사
▲동행 문학지교 회장



시조

홍영숙

길 너머의 길

온갖 맛 삼키면서 무사히 건너온 길
발끝에 쌓인 속말 비질하듯 내뿜고
참으로
결눈질 삼가며
어질병을 눌렀다

지천명 넘긴 무렵 익혀진 느린 걸음
서운해 떠난 사연 지금은 웃음 된다
끓었던
시퍼런 통점
그 모두가 밑둥이다

햇살 드는 모퉁이 나직한 그림자들
지나온 삶의 무늬 굵이 돌아 겹쳐진다
가람잎
하나 굴러가자
세상도 따라간다

약력

▲시에그린 문인백일장 대상(시), 고산문학대상 시조신인상
▲비폭력·평화·생명에 관한 공모전 최우수상
▲문화예술 전국문학상 대상(다카시)
▲공무원 문학연감상 수상
▲시낭송교육사, 다카시1급창작지도사
▲시집 : '사랑꽃으로 피고 외로움 잎으로 지다', '조각보를깎다'



수필

오경심

마음속 금수저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는 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뜻으로 알고 있다.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라 온 사람은 자라면서 이미 풍족함을 누렸을 것이고 부모님 혜택으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며 사는 사람.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좋은 품성을 지닌 부모를 둔 자녀야말로 인생의 출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에 그 의미는 더욱 깊다. 돌이켜 보면 나의 엄마 노릇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시는 것을 보기만 했지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이 주부가 되고, 어머니의 길로 들어섰다. 생각과 지혜는 자라지 못했는데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린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흔들렸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밝은 모습보다는 긴장 상태의 연속으로 가족을 대하였다. 둘째가 태어나고부터는 일과 육아의 균형이 더욱 험해왔다. 아이의 잦은 병치레로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네 살 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대신 얻어진 대가족의 살림살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 하루하루 지쳐만 갔다. 아이들은 그저 먹이고 입히기에 급급했을 뿐이고 집안 일은 끝이 없었다. 큰딸이 일찍 철이 들어 동생들을 다독이며 엄마에게 힘을 주었다. 잦은 실수는 경험이라는 여유와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서비스로 주었지만 그때는 몰랐다.

큰아이는 꿈이 컸다. 아버지는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많다”고 하며 서울로 가는 것을 반대했다. 울며 며칠을 보내던 아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결국은 혼자 힘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갔다. 유학 생활은 투쟁이었고 전쟁이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추위를 많이 타던 아이가 다락방의 찬 공기 속에서 옷을 꺼입고 공부하며 잠들었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시리다. 아이는 학생회장을 하며 밝고 건강하게 학창 시절을 잘 보내면서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준 아이였다. 유학을 떠난 후에야 겨울이면 아이의 양 볼이 퍼렇게 시려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뒤 과외 아르바이트를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앞뒤로 대학생인 누이들은 과외를 하며 스스로 생활하는데 남자아이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용돈을 걸고 각오하라고 일렀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단 한 번도 용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졸업을 했다.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는 아이였다. 나는 그 고집을 꺾으려고만 했지 자존감을 세워주는 엄마가 되지 못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미안함이 가시질 않는다. 부드럽게 타이르기보다는 거칠게 몰아세운 날이 더 많았다. 나 혼자 자라며 늦둥이 요령 없던 내 모습이 싫어서, 아들만큼은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

워주고 싶었으나 사랑의 표현은 늘 서툴렀다.

세월이 흘러보니 금수저란 결국 재산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물려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장녀와 장남에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크다. 서툰 감정만을 내보이던 엄마의 실체를 알고도 따라와 준 아이들과 그런 형과 언니를 본받으며 자라준 동생들이 어느새 성인이 되었다. 나이 들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종종 큰아들이 다니던 대학 근처를 지나 집으로 오곤 했다. 본인이 정작 원하지도 않았던 진로를 택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학교를 다녔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말없이 앞을 보고 가던 아이. 그 아들이 수천수만 번은 오르내렸을 학교 앞의 계단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어려서는 소리에 예민하고 감기처럼 폐렴을 달고 지내더니 그동안 사람이 그리웠는지 일을 그만둔 뒤로는 차차 병을 이겨냈다. 대부분 시리고 아린 기억들이다. 세월이 흘러서야 알았다. 넘어지고

깨지며 스스로 배우는 시간이 결국 그들을 키운다는 것을. 아는 척 간섭하는 엄마보다 모르는 척 믿어주는 엄마를 가진 아이들의 미래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금수저는 물질이 아닌 출렁이지 않은 부모의 믿음과 든든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던 시간들과 안아주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후회하며 그때 해주지 못한 미안하고 슬픈 감정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다. 세련된 사람의 언어를 찾지 못하고 서툰 감정만으로 마음을 전했던 미숙한 나의 시간들을 이제야 조용히 용서하고 싶다.

약력

▲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2001년)
▲ 수필집 : '놀라운 편지', '홀로 추는 춤' 외 공저 다수
▲ 그림책 : '자루와 따루'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지방 지사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